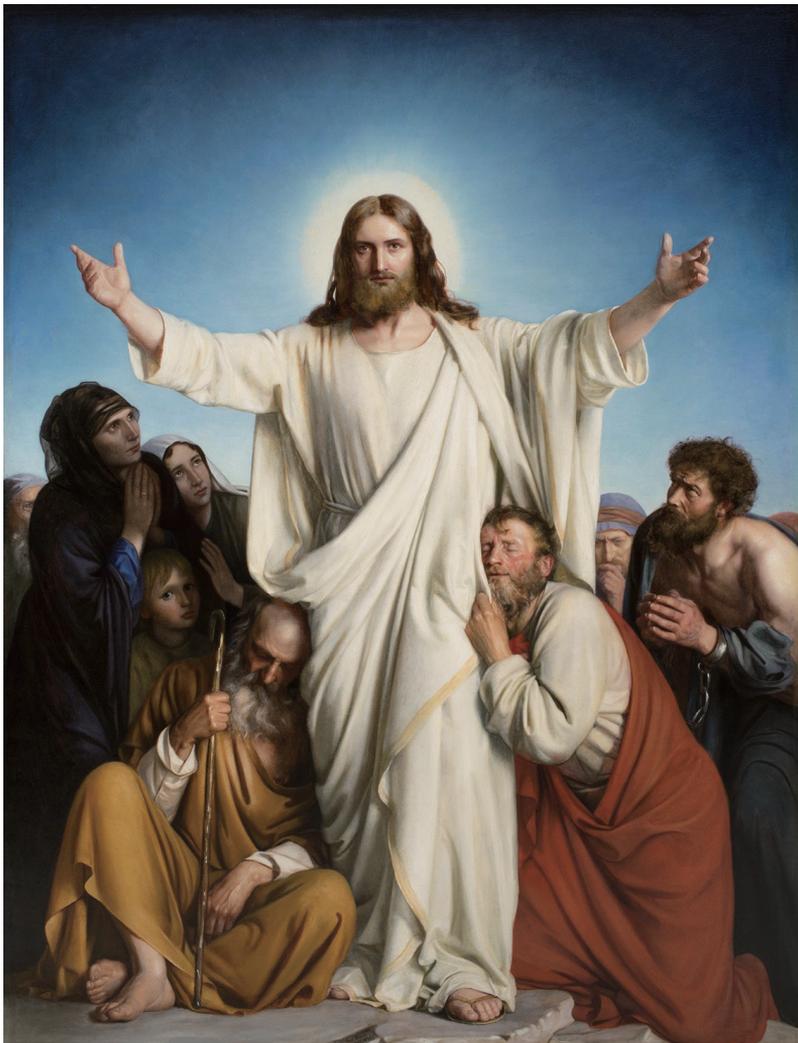


대구주보

부활 제5주일
2020. 05. 10. (가해) 제2213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 14,6)



‘위로자이신 그리스도’, 칼 하인리히 블로흐, 브리검 영 대학교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남산본당 주임 | 이상영 그레고리오 신부

사람은 누구나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도달하게 될 목적지를 추구하며 길을 갑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길은 정해집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목적을 향해 인생길을 잘 가고 있는지 두고두고 따지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의 목적은 정해졌는데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길 이 정말 확실한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군가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엉뚱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얻어 누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목적이 생명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예컨대, 부나 권력이나 명예 등등이라면 예수님께 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것은 얻을 수 있어도 생명은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마태 16,26)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4,6)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대개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길과 그 길의 참됨 여부, 즉 목적이 분리되어 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생명으로 가는 길인 동시에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동시에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따로따로 찾고 얻으려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는 길이 바로 진리요, 진리가 바로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길, 진리, 생명은 하나로 수렴되는데, 곧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요, 깨달아야 할 진리요, 누려야 할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확실한 길을, 오류와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진리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생명을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필문**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하며

찬미예수님! 교우 여러분께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사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활 대축일에도 성당에 모여 함께 미사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대송을 바치며 성체를 모시지도 못하고 영상으로 미사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는 많이 진정되었고, 사회도 조심스럽게 생활방역의 단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많은 교구가 지난 4월 23일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구도 5월 7일(목)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방역 당국의 지침을 잘 준수하시고, 본당의 사정에 맞추어 세부 지침을 잘 지키면서 미사에 참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지난 ‘하느님의 자비 주일’ 미사 강론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을 이겨 나가고 있는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나쁜 바이러스는 바로 ‘이기적인 무관심’입니다. “이기적인 무관심은 나만 잘살면 삶은 더 나아지고, 나만 잘되면 모든 것이 좋다는 생각으로 퍼져 나가는 바이러스”라고 하시며, 차별이나 혐오 없이, 더 포용하고 지속 가

능한 방법으로 세상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며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자연은 또 다른 방법으로 인간에게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이후 공기는 맑아지고 생태계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그것을 말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들처럼 전염병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도 시급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전 지구적인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활 제5주일) 복음 말씀처럼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나아갑시다. 그 길은 이기적인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으며, 인간을 넘어서 자연과 모든 생태계를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미사를 재개하며, 하느님을 향하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느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2020년 5월 6일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 聖가 라대오

‘대영광송’은 왜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에는 바치지 않나요?

사순 시기는 주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참회와 속죄를 하는 시기이고 대림 시기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경건하게 기도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전례 시기에는 축제의 노래와는 맞지 않으므로 대영광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영광송은 교회가 성령과 함께 성부와 성자께 영광을 드리는 대표적인 찬미가입니다. 대림과 사순 시기를 제외하고 모든 주일, 대축일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전례 거행 때에는 이 대영광송을 노래하거나 낭송합니다.〔미사 경본 총지침〕〔Institutio Generalis Missalis〕, 53항 참조) ‘하느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본디 하느님의 현존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찬미하는 많은 노래와 기도를 ‘영광송’이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으로 시작하는 찬미가를 ‘대영광송’이라고 합니다. 대영광송의 도입부는 천사들이 구세주 탄생을 찬미하는 노래(루카 2,14 참조)이고, 찬미 노래 다음에 이어지는 대영광송의 첫째 부분은 성부에 대한 찬양이며, 둘째 부분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대영광송은 사제, 또는 필요에 따라 선창자나 성가대가 시작하지만, 그 다음 본문은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신자들과 성가대가 교대로 노래하거나 또는 성가대만 노래합니다. 노래하지 않을 때에는 모두 함께 낭송하거나 두 편으로 나누어 교대로 낭송합니다. 축제의 기쁨이나 장엄한 전례 분위기를 드러내려면 성가대의 아름답고 웅장한 합창도 필요하지만, 전례의 공동체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모두 함께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영광송은 찬미의 노래이기 때문에 서서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영광송 노래를 성가대만 부를 경우에 주례자가 자리에 앉는다면 신자들도 앉습니다. 이와 같이 대영광송은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에는 바치지 않습니다.

출처 : 주교회의 교리교육위원회 편찬 『미사 전례』

구한선 타대오 (1844~1866년)



구한선(具漢善) 타대오는 경상도 함안 미나리골(현 경남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였던 그는 글을 많이 읽었는데, 천주교에 입교하기 전에는 어떤 요술에 빠진 적도 있었다.

어느 날 타대오는 우연히 천주교 신자를 만나 교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는 즉시 이를 받아들여 그로부터 교리를 배운 뒤, 성 다블뤼(A. Daveluy, 安敦伊) 주교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런 다음 약 10년 동안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다가 리델(F. Ridel, 李福明) 신부의 복사로 선택되어 거제도 전교에 동행한 적도 있었다.

1866년 병인박해가 발생한 뒤, 타대오는 리델 신부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와 지내던 중 진주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그곳 관아로 압송되었다. 이윽고 관장 앞으로 끌려나간 그는 갖가지 문초와 형벌을 받으면서도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또 옥에 갇혀서는 주요 교리를 설명한 글을 적어 관장의 부인에게 전하였다.

타대오의 글을 읽은 그 부인은 관장에게 그를 석방해 주도록 요청하였고, 이 말을 들은 관장은 화가 나서 구한선 타대오를 옥에서 끌어내어 혹독하게 매질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대오는 “아프다”는 신음 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이에 관장은 화가 나서 “제대로 매질을 하지 못한다.”고 형리들을 꾸짖자, 형리들은 “제대로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더 때리면 그가 죽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관장이 이번에는 타대오를 향해 “어찌하여 아프다는 소리 하나 내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늙으신 어머니가 문밖에 있을 터인데, 만일 신음 소리를 내면 어머니가 이를 듣고 기절하실 것이므로 신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또 관장이 “그러면 어찌하여 천주교를 신봉하였느냐?”고 묻자, 타대오는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가르치므로 천주교를 신봉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처럼 모진 형벌을 당한 뒤에 타대오는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그 형벌로 인해 7일 만에 선종하였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22세였다. 순교한 뒤 그의 이마에는 ‘품’(品)자 모양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다고 한다. 그의 시신은 가족들이 고향 인근에 안장하였다.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 재개

대구·경북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확산되었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었고, 최근에는 지역감염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구는 대구시와 경상북도와의 논의를 거쳐 5월 7일(목)부터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미사 재개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미사 전 준비

- 1) 성체 분배 봉사자는 미사 전후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는다.
- 2) 감염자가 확인될 경우의 역학 조사를 대비하여, 미사 참례자 참석 기록을 남긴다.
다른 분당 소속인 경우, 소속 분당과 이름도 적는다.
- 3) 미사 참례자는 분당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성당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하고
손 세정제를 사용한 뒤 성전에 들어간다.
- 4) 엘리베이터 대신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미사 중 유의사항

- 1) 모든 신자는 미사 시간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다. 성체를 모시는 순간에만 마스크를 벗는다.
- 2) 미사 중 회중이 함께하는 성가나 기도문 합송은 되도록 피한다. 성가는 부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창자의 독창이나 오르간 연주로 대신할 수도 있다. 미사 경문 중 신자들의 응답 부분은 해설자가 대신한다.
- 3) 미사 도중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다더라도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한다.
- 4) 미사 중에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한다.
- 5) 성체 분배에 앞서 사제가 큰소리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번 말하고, 이에 신자들은 다 함께 "아멘"이라고 한 번 응답한다. 개별 성체 분배 때에는 '아멘'을 침묵 중에 각자 속으로 한다.
- 6) 신자들은 양형 영성체를 하지 않는다.
- 7) 성경과 성가집은 공용이 아닌 개인의 것을 사용하며, 헌금 봉투 등의 물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전례

| | | | | | |
|----------------|--|----------------|-----------|------------|------------|
| 제 1 독 서 | 사도 6,1-7 | 제 2 독 서 | 1베드 2,4-9 | 복 음 | 요한 14,1-12 |
| 화 답 송 | ◎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또는 ◎ 알렐루야. | | | | |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 알렐루야. | | | | |
| 영 성 체 송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 | | | |

미사 안내

| | | | |
|-----------------|----------------------|----------------|----------------------|
| 경주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 5월 11일(월) 11:00 황성성당 | 1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 5월 12일(화) 11:30 계산성당 |
| 1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 5월 11일(월) 11:00 계산성당 | 김천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 5월 13일(수) 10:00 평화성당 |

성소 | 피정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7437-3217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수시로 가능

장소: 부산 오륜대 본원

문의: (010)6222-7371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5.16(토) 14:00

장소: 개화동 수도원(서울)

문의: (010)3800-1579

예수회 젊은이 침묵 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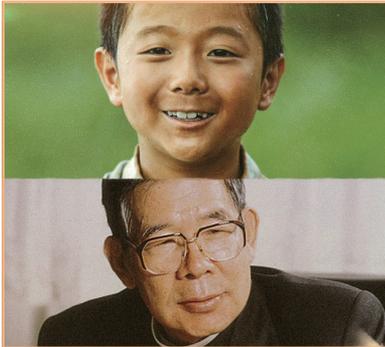
일시: 5.23(토)~24(일) 1박 2일

장소: 대구 베네딕도영성관

내용: 침묵 속 개인 기도회와 고해, 개별 면담

비용: 대학생 5만원, 일반 청년 6만원

문의: (02)3276-7706(10:00~17:00)



마음을 어루만지는 기도 영화 『저 산 너머』

코로나19 속 대한민국에 전하는 위로와 희망, 따뜻한 감동의 메시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어른 故 김수환 추기경의 어린 시절을 만나다!

상영관 :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 주보 자참시 CGV 7,000원에 관람 · 메가박스, 롯데시네마는 3,000원 할인(헌매에 한함)

(자세한 상영관 및 영화시간은 각 상영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 성금 후원계좌 : 대구은행 041-10-003277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코로나19 피해 성금 접수현황은 교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우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고), 박필교(율리안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이 원 의 료 기

협압계·혈당계·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주사기·보호대·뜸·부항기
주열가·체온계·육창매트·환자용품
안마기·실버카산소치료기·찜질기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2513

(초혼, 재혼)

가나혼인잔치

25년 전통의 가톨릭전문결혼정보회사

전국대표전화 : 1566-6205
대구 : 070-4790-3888
서울 : 02-3141-3888
부산 : 051-817-3887

KG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내 집처럼

무료전화 080-053-1000
김진수(마르티노) 010-7484-3355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 전문
경대병원 응급실 건너편

T.(053)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
- ◆소방안전관리대행
- ◆종합정밀점검
- ◆소방관련기술교육
-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노비스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암 · 재활 · 소화기 · 통증 · 건강검진

Happy! 3인인병원

의사와 환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기톨릭대병원 입구 ☎(053)670-6000

행사 | 모임

5월 예비신학생 모임(중1~고2)

일시: 5.17(일) 14:00
 장소: 1~3대리구: 남산동 신학교
 4대리구: 성동성당, 죽도성당
 5대리구: 5대리구청, 평화성당

교육 | 모집 | 기타

청년 백독(신약통독) 모집

일시: 매주 금 11:00~12:30
 장소: 범어동 바오로딸서원
 대상: 20~40세 청년 남녀
 참가비: 1만원
 문의: 정막달레나 수녀,
 (010)6409-4610

2020 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5.18(월)~29(금)
 모집: 일반, 교육,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발성법, 오카리나, 제대꽃꽂이, 수지침,
 섬유공예, 피아노,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창작사진, 원어민왕초보영어,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경산베네딕도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일반: 신·구약 (수) 10:00, 19:30

심화: 성문서 (월) 10:00, 19:30
 (일반과정 이수하신 분에 한함)
 주소: 경산시 남매로 205(임당역 근처)
 문의: (010)3311-2672 / (010)8243-0195

대구 예수마음기도(4주 과정)

일시: 6.1~22 매주 월 10:30~16:30
 장소: 지산성당(선착순 10명)
 대상: 하느님과 깊게 만나고 싶은 분
 신청: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010)9620-5603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 ME주말

6월 ME주말: 6.5일(금)~7일(일)
 쉼신 주말: 7.25일(토)~26일(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6.5~7 / 6.16~18 / 7.28~30
 장소: 제주성지 7곳 (성지해설)
 지도: 안성철(마조리노) 신부
 (바오로수도회)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
 문의: (064)805-9890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2018년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채용 | 안내

가천성당 사무장 채용

자격: PC 가능, 1종 면허 소지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마감: 채용시까지
 문의: 본당사무실, (054)932-4026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후원자 모집

가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이들에
 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세요.
 해외 10개국 20개 지역에서
 후원자 감사미사를 매월 봉헌합니다.
 문의: 423-3008(내선 2번)

교구 법원 안내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휴정했던 교구 법원의 재판을
 5월 14일부터 시작합니다.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가는 길!
수성성당 연도실
 기도과 실비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T. 010-3530-7700
 010-3817-0111
 양호진 요셉, 장효선 데보라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언어 학회장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역임
 개령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36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곡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U&I
유엔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경림 (아네스)

일월, 한솔, 한일매트
게르마늄 온수매트
소금좌욕기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T.053)604-3300
 대구 북구 유봉동지로 45 전자관 1층 239호

신랑각시결혼
 전문직·초혼·재혼·만혼
 의사, 약사, 교사, 공무원 환영
 이 원 고(요안나) | 27년 경력
 053)471-0707 | 010-9688-7953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SM 수맥홍침대
 후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향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